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 사회사업의 발전

- 임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

황성철**

- I. 서론
- II. 효과성 논쟁의 발전과 의의
- III. 인식론에 관한 논쟁과 조사방법론
- IV. 실천가-조사자의 역할과 단일사례조사
- V. 종합 평가 및 최근의 경향
- VI. 한국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에의 함의

I. 서론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 사회사업학계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그 논쟁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이다. 사실상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의 존립과 발전은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과적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960년대말과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평가조사에서 사회사업 전문직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개별사회사업은 별

* 이 연구는 1996년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된 것임.

**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직업훈련학교의 소녀(*Girls at Vocational High*)¹⁾란 제목의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의 결과가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사실이 신문 기사화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더욱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과 평가는 대부분 단편적인 자료에 기반을 두었거나 사회사업 프로그램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이념적인 이유로 비판되었기 때문에 그 설득력과 정당성은 확보되기 어려웠다. 물론 미국 사회사업계의 학자와 연구자들은 사회사업적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 발달의 초기부터 꾸준히 해 왔지만, 적어도 1970년대 초반까지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 문제는 사회사업학계에서 엄정한 절차와 평가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에 1973년 사회사업가이면서 동시에 학자이기도 한 Fischer는 사회사업적 개입의 효과성을 조사연구한 내용을 분석하여 “개별사회사업은 효과적인가?”라는 논문²⁾을 발표하면서 사회사업실천은 효과성을 입증할만한 한 증거 부재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개입에 의해서 클라이언트 상태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폭탄적인 선언을 했다. Fischer가 행한 11개의 기존 개별사회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의 비교분석에 이어 1978년 Wood의 사회사업실천을 구성하는 22개 조사연구의 분석³⁾에서도 사회사업실천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나타나자 사회사업학계와 실천현장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1980년대 Reid와 Hanrahan⁴⁾을 선봉으로 한 일단의 학자들⁵⁾이 사회사업실천은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실천방법론을 식별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향후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하튼 1970년대 Fischer에 의해 시작된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은 미국 사회사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사회사업실천을 위해서는 무엇

1) Meyer, H., Borgatta, E., & Jones, C. W. *Girls at Vocational High: An Experiment in Social Work Intervention*, New York: Russell Sage, 1965.

2) Fischer, J. "Is Casework Effective? A Review," *Social Work*, Vol. 18, 1973, pp. 5-20.

3) Wood, M. "Casework Effectiveness: A New Look at Resesrch Evidence," *Social Work*, Vol. 23, No. 6, 1978, pp. 437-459.

4) Reid, W. J., & Hanrahan, P. "Recent Evaluations of Social Work: Ground for Optimism," *Social Work*, Vol. 27, No. 4, 1982, pp. 328-340.

5) Thomlison, R. J. "Something Works: Evidence from Practice Effectiveness Studies," *Social Work*, Vol. 29, 1984, pp. 51-56. Rubin, A. "Practice Effectiveness: More Grounds for Optimism," *Social Work*, Vol. 30, No.6, 1985, pp. 469-476. Videka-Sherman, L. "Metaanalysis of Reseach on Social Work Practice in Mental Health," *Social Work*, Vol. 33, No. 4, 1988, pp. 325-338.

이 절실히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양산시켰다. 특히 이 논쟁은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조사방법론을 둘러싼 인식론에 관한 새로운 논쟁을 야기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개입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사회사업계는 유래없이 수 많은 학자와 연구자를 비롯한 실천가들이 이와 같은 논쟁에 가담하여 제각기 자신들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 미국 사회사업학계는 상당한 정도로 학문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20여년 동안 미국에서 전개된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의 본질과 의의를 규명하고 차후에 전개된 인식론, 조사방법론, 사회사업가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논쟁의 발전과 전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실천학문으로서의 미국 사회사업학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사회사업학과 실천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밝혀 보는데 있다.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이 차후의 인식론, 조사방법론, 단일사례조사의 강조 등에 관한 논쟁으로 비화된 이유는 결국 1970년대까지 사회사업실천이 비효과적이었던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며 사회사업실천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려면 과학에 기반을 둔 실천활동이어야 한다는데에는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사회사업의 과학화에 대해서는 논리적 실증주의자들과 그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효과적인 실천지식이 구축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사방법이 실천현장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II. 효과성 논쟁의 발전과 의의

I. Fischer에 의한 효과성 논쟁의 시작과 연구결과

사회사업가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는가에 관해 항상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실천의 효과성 문제가 사회사업계의 공공연한 이슈가 되어 검토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자 Briar는 전반적으로 사회사업의 개입전략, 특히 개별사회사업의 방법과 기술은 그 효과성이 입증되

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다.⁶⁾ 그 후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자들은 기존에 이루어진 조사연구를 종합적으로 비평하는 방식으로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의문을 하나 둘씩 풀기 시작했다. 우선 Grey와 Dermody는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개별사회사업적 개입을 다룬 3개의 경험적 조사연구와 빈곤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입을 다룬 3개의 경험적 조사연구, 총 6개의 조사연구를 분석한 결과 3개의 조사연구에서만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⁷⁾ 그러나 이들 조사연구는 사회사업적 개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장기와 단기에 걸친 복잡다양한 서비스를 막연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로 판단될 수 없었다.

한편 Segal도 유사한 방법으로 빈곤가정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6개의 경험적 조사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사업과 심리치료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⁸⁾ 특히 그가 분석한 6개의 조사연구는 표적 인구집단에 대한 명확한 지식의 결여와 일관성 없는 개입방법이 허다하게 노출되었고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문제의 규명조차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통제집단을 확연히 대조되는 집단으로 선정하는 등에서 수많은 조사방법론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연 사회사업실천은 효과적인가에 관한 신뢰할 만 하고 정확한 해답을 구하는 차원에서 전개된 Fischer의 기존 조사연구에 대한 비평적 검토⁹⁾는 우선 사회사업적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로부터 시작되었다. Fischer는 개인, 가족, 집단에 대한 개입과 심리치료의 구체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개입방법이 개별사회사업(Casework)이라는 이름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단지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라도 사회사업학석사(MSW) 학위를 소지한 실천가에 의해서 제공되면 전문적 사회사업실천이라 간주하였다. 그리고 그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정과 조사대상자의 무작위적 배분 같은 조사연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1930년대 부터 1972년까지의 70개가 넘는 조사연구 가운데 위의 세가지 요건을 구비한 11개의

6) Briar, S. "The Casework Predicament," *Social Work*, Vol. 13, No. 1, 1968, pp. 5-12.

7) Grey, A. C., & Dermody, H. E. "Reports of Casework Failure," *Social Casework*, Vol. 53, 1972, pp. 534-543.

8) Segal, S. P. "Research on the Literat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13, 1972, pp. 3-17.

9) 여기서 비평적 검토란 Metaanalysis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존의 조사연구를 비교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조사연구(research)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비평적 분석, 분석 또는 단순히 연구라는 용어로도 사용될 것이다. Fischer, J., 1973, 전제 논문. 이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11개의 조사연구는 1950년대 이루어진 것이 1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1960년대 수행된 것이다.

개입 결과에 관한 조사연구 가운데, 9개가 전문적 사회사업가에 의한 개입의 효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2개는 조사방법론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심지어 육아원 또는 요양원과 같은 수용시설의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2개의 조사연구에서는 사회사업적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과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않는 청소년과 노인들보다 높은 비행기록과 사망률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Fischer는 사회사업 특히 개별사회사업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개입에 의해서 서비스 대상자들의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러한 Fischer의 연구결과가 사회사업전문학술지(Social Work)에 발표되자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실무계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의 조사연구를 비판하고 평가절하하기 시작했다.¹⁰⁾ Fischer의 조사연구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가지 점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첫째, Fischer는 1973년 이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한 11개의 경험적 조사연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분석의 대상이 된 조사연구는 주로 청소년과 빈곤가정에 대한 개입으로 당시 전개되고 있었던 다양한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입의 성과에 관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사회사업으로서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대부분의 개별사회사업실천은 또한 이같이 엄격한 실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의 비평적 검토에 의한 결론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 11개 조사대상의 선정과 조사방법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Fischer가 11개 경험적인 조사연구를 선정한 것은 자신이 정의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시한 엄격한 실험적 조사연구의 요건을 구비한 것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기준이었으며, 11개의 실험적 조사연구는 대부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조사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Fischer는 그 후 1976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시도한 보완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여전히 사회사업실천은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그는 1976년 보완적 연구¹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과 일반 가정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갖는 여성에 대한 치료와 같은 조사연구 등을 포함시켰고, 1978년에 이루어진 보완적 연구¹²⁾에서는 심리치료, 상담, 교정, 정신장애치료, 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조사연구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10) Crum, F. W. "Point and Viewpoint," Social work, Vol. 18, No. 3, 1973, pp. 125-126. Alexander, L., & Siman, A. "Fischer's Study of Studies," Social Work, Vol. 18, No. 4, 1973, pp. 104-106.

11) Fischer, J. The Effectiveness of Social Casework, Springfield, IL: C.C. Thomas, 1976.

12) Fischer, J. "Does Anything Work?"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3, 1978, pp. 213-243.

이와 같이 Fischer의 보완적인 후속연구와 자료의 제시로 일단 분석의 대상이 된 조사연구의 대표성의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분석의 대상이 된 조사연구의 문제선정과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사업계에서는 과학적인 조사의 절차와 방법의 적용에서 실무자는 차지하고 연구자들조차 미숙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비평적 분석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학계와 실천현장은 그의 연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천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데에 일단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Fischer는 개별사회사업이 비효과적인 이유를 사회사업가들이 경험적 조사연구에 근거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는 경험적 조사연구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성이 입증된 개입방법을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¹³⁾ 이것은 전통적으로 Freud의 심리역동이론에 기반을 두고 당시 개별사회사업의 주종을 이루는 자아심리학적 실천방법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 문제가 측정되고 또한 개입에 의해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행동주의적 실천방법을 과감히 도입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회사업가는 스스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사업과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의 결과를 부단히 학습하고 참고하여 실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¹⁴⁾

그런데 Fischer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외가 아닌 법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을 재확인시켜주고 따라서 사회사업학과 실무계는 크게 자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은 1973년 이후에 이루어진 22개 조사연구를 종합적으로 비평분석한 Wood의 논문¹⁵⁾이 발표된 시기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 Wood는 과거 Fischer의 조사연구가 개별사회사업의 범위를 사회사업학석사(MSW) 학위 소지자에 의한 실천으로 제한하고 엄격한 실험조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대표성 부재와 조사방법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부과정 이수자(BSW)에 의한 실천과 의사실험조사도 포함시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사회사업실천은 비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비행청소년과 우범청소년을 함

13) Fischer, J. "Training for Effective Therapeutic Practi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Vol. 12, 1975, pp. 118-123. Fischer, J. (ed.), *The Effectiveness of Social Casework*,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76.

14) Kirk, S. A., & Fischer, J. "Do Social Workers Understand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Vol. 12, Winter, 1976, pp. 63-70.

15) Wood, M. "Casework Effectiveness: A New Look at Research Evidence," *Social Work*, Vol. 23, No. 6, 1978, pp. 437-459.

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결과 우범청소년들의 차후 비행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2. 반론의 계기와 낙관적인 증거

사실상 사회사업실천이 효과적인가와 같은 총체적인 질문에 소수 몇몇의 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사회사업실천은 실로 광범위한 서비스제공 활동을 포함하고 그러한 활동들이 때로는 클라이언트를 조작하는 실험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Fischer와 Wood의 주장도 기존에 이루어진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각양 각색의 조사 가운데 실험조사와 의사실험조사를 적용한 것만을 분석한 결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총괄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Reid와 Hanrahan¹⁶⁾은 그와 같은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클라이언트 집단을 위해서 사용된 구체적이고 특정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실천이론의 개발과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위한 지식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래서 그들은 1973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가 대면관계를 이루고 사회적 기능상의 문제를 다룬 22개의 실험조사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예외적으로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회사업실천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그들은 사회사업가들이 구체적인 개입목표를 정해서 접근하는 구조화된 개입방법이 1970년대 이후 증가되었고 이러한 실천방법들이 긍정적인 개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Reid와 Hanrahan에 이어 Thomlison¹⁷⁾은 심리치료, 가족치료, 부부치료, 그리고 행동치료의 영역에서 잘 계획되고 체계화된 사회사업활동은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행동치료와 단기의 구조화된 개입방법이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사회사업가들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진실성, 온유함, 감정이입의 원칙을 준수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16) Reid, W. J., & Hanrahan, P. "Recent Evaluations of Social Work: Ground for Optimism," *Social Work*, Vol. 27, No. 4, 1982, pp. 328-340. Reid와 Hanrahan은 효과성 부재를 주장한 Fischer의 논문을 비판하고 효과성 입증의 증거를 제시했지만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에 대한 방향제시는 Fischer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경험적 실천론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17) Thomlison, R. J. "Something Works: Evidence from Practice Effectiveness Studies," *Social Work*, Vol. 29, 1984, pp. 51-56.

태도를 보일 때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Rubin¹⁸⁾은 1978년에서 1983년 사이에 전문학술지와 연구보고서에 발표된 실천의 성과를 조사한 12개의 조사연구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개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합당한 절차와 구체적으로 정의된 개입방법을 사용한 대부분의 실천방법은 효과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후 Videka-Sherman¹⁹⁾은 사회사업의 주된 실천영역인 정신건강사회사업가들의 활동 효과성을 다룬 1965년에서 1983년까지의 실험조사연구 38개를 비교분석한 결과 단기의 시간제한적이고 매우 활발한 지도력을 발휘한 사회사업가에 의한 실천은 효과적이라는 낙관론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3.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사회사업실천방법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이 가져다 준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는 수 많은 조사연구자들과 학자들이 이같은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식별 가능케 하였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데 있다. 우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 Fischer는 기존의 조사연구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효과성이 증명된 사회사업과 인접 전문직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²⁰⁾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사업은 궁극적으로 절충주의적 방법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사실상 효과성 부재를 입증하는 그의 선행연구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사회사업실천 특히 개별사회사업의 본질 또는 성격이 모호했고 사회사업가의 개입방법도 구체성이 없었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유형과 성격에 적합한 경험적 지식과 기술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절충하는 것은 새로운 접근방법의 시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Fischer를 포함하여 효과성 논쟁에 가담한 여러 학자들이 제각기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입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비효과적이었으며 어떤 개입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효과적이었는지를 규명해 보겠다.

18) Rubin, A. "Practice Effectiveness: More Grounds for Optimism," *Social Work*, Vol. 30, No. 6, 1985, pp. 469-476.

19) Videka-Sherman, L. "Metaanalysis of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in Mental Health," *Social Work*, Vol. 33, No. 4, 1988, pp. 325-338.

20)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이론과 기술 가운데 특히 조사와 측정이 가능한 행동주의 이론과 치료 기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21) Fischer, J. *Effectiveness Casework Practice: An Eclectic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1978.

1) 임상적 개입에 의해 클라이언트 상태의 악화가 초래된 경우

임상적 실천의 결과 약 10%에 이르는 상당 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전문적 개입의 결과로 문제상황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²²⁾ 이러한 경우는 특히 정신분열증과 경계선성격장애를 갖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의 상승적인 방어기제 사용을 억제하려고 애쓰거나 그러한 클라이언트에게 특정한 상황과 과제에 직면하도록 지나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입의 초점을 맞출 때에 그들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사업가가 개입과정을 보다 잘 조직화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의 절망과 우울감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사회사업가가 그러한 클라이언트의 심리상태에 과도한 집착을 보일 때와 클라이언트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주 공격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Fischer는 클라이언트 문제의 악화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면서 사회사업들이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도와 줄 수 있다는 구제환상(rescue fantasy)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했다.²³⁾ Rubin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사업가들이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역동적 치료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²⁴⁾ 그리고 Wood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개입에서는 사회사업가가 실천에서 자신감과 능력감을 보이지 않은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집단 사회사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조사연구들은 Fischer의 연구에서 2개가 발견되었으나 그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²⁵⁾ 그러나 Galinsky와 Schopler의 집단심리치료의 조사연구에서 사회사업가가 이완된 구조로 집단을 지도하거나 집단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대를 갖지 않을 때는 사회사업가가 집단구성원들에게 행하는 의사소통과 지시가 분명하고 집단을 구조화할 때 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했다.²⁶⁾ Wood의 연구에서는 잘 구조화되지 않은 집단의 경우와 비행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과 이미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동일한 집단에 속하게 할 경우는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커녕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명해진다고 지적했다.²⁷⁾

22) Bergin, A. E., & Lambert, J. J. "The Evaluation of Therapeutic Outcomes," In S. L. Garfield & A. E. Bergin, Eds., *The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An Empirical Analysis*, New York: Wiley, 1978, pp. 139-198. Lambert, M. J., Shapiro, D. A. & Bergin, A. E. "The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and In S. L. Garfield & A. E. Bergin, (Eds.),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3rd ed., New York: Wiley, 1986, pp. 157-211.

23) Fischer, J. "Does Anything Work?"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3, 1978, pp. 213-243.

24) Rubin, A. 1985, 전제논문.

25) Fischer, J. 1976, 전제서.

26) Galinsky, M. J., & Schopler, J. H. "Warning: Groups May Be Dangerous," *Social Work*, Vol. 22, 1977, pp. 89-93.

2) 효과적인 임상적 실천방법

사회사업실천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경험적 조사연구의 비평적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었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Thyer와 Hudson은 구조화된 개입방법이 다른 접근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의 근본적인 개념적 틀인 상황 속의 인간을 다루는 실천모델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²⁹⁾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개입방법은 개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클라이언트와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 구체적인 개입절차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조화된 개입방법은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에 걸쳐 측정가능하고 구체적인 개입목표를 설정하여 일련의 효과적인 개입기술과 절차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 Reid와 그의 동료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장단기적 개입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단기의 구조적 개입모델을 바탕으로 이를 다양한 표적집단과 현장에 주로 행동수정 기법을 적용시킨 결과 과업중심적 접근방법(Task-Centered Approach)을 개발했다.³⁰⁾ 결국 그들은 일종의 구조화된 개입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행동주의적 치료기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차후에 과업중심적 실천방법으로 발전시킨셈이다.³¹⁾ 여기에서 과업중심적 접근방법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사실상 실천의 효과성을 검증한 수많은 조사연구에서 구조화된 개입방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실천모델이 과업중심적 접근방법이었고 또한 그 효과성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업중심적 접근방법은 사실상 공공복지기관을 비롯하여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하여 학교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산업복지 분야 등 다양한 실천영역에 적용되어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³²⁾ 또한 이 모델은 영국의 사회사업 분야인 공공복지기관, 보호관찰기관, 자살예방서비스기관 등에도 적용되어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³³⁾ 여하튼 과업중심적 접근방법이 1970년대 초반 일종의 구조화된 접근방법으

27) Wood, M. 1978, 전제논문.

28) Fischer, J. 1978, 전제논문. Reid, W. J., & Hanrahan, P. 1982, 전제논문. Thomlison, R. J. 1984, 전제논문. Rubin, A. 1985, 전제논문.

29) Thyer, B. A., & Hudson, W. W. "Progress in Behavioral Social Work: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10, 1987, pp. 7-35.

30) Reid, W. J. & Epstein, L. *Task-Centered Casework*,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2. Reid, W. J. & Epstein, L. *Task-Centere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7.

31) 과업중심적 실천방법(Task-Centered Practice)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체계화된 개입기술과 절차를 과업수행방법(Task-Implementation Sequence)라고 부르는데 이는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의 의지와 실행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계획하며, 문제해결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모델링과 리허설 등 행동주의적 기법을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개입을 지도하고 종합정리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다.

32) Reid, W. J., & Epstein, L. 1977, 전제서.

33) Goldberg, E. M., Gibbons, J., & Sinclair, I. Eds., *Problems, Tasks, and Outcomes: The Evaluation of*

로 개발적용되어 보편적으로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만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필자의 관점에서 과업중심적 접근방법의 장점과 한계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우선 과업중심적 접근방법은 구직을 원하거나 대인관계와 역할수행상의 어려움을 갖는 클라이언트에 매우 효과적이었다.³⁴⁾ 그러나 정신분열증, 경계선인격장애, 성격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정신질환자, 상습범죄인, 그리고 만성실업자 등 소위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고 뿌리가 깊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개입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³⁵⁾ 아마도 이 모형에서는 과업의 선정과 과업수행 등에 관해서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불가결하나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그러한 측면에서 동기의 부족과 능력상의 한계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과업중심적 접근방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중간범위의 문제를 갖는 서비스대상자에 보다 잘 적용되고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간주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과업중심적 접근방법으로 대표되는 구조화된 개입방법과 더불어 행동주의적 모형을 적용한 경우에도 실천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Rubin의 기존 조사연구에 대한 비평적 검토에서 행동수정모델이 클라이언트의 사회적기술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보고되었고³⁶⁾ Berlin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모형을 적용시킨 결과 여성들의 부정적인 자기비판의 심각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³⁷⁾ 의료사회사업분야에서 이루어진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조사연구를 종합분석한 결과 행동주의적 개입방법은 대체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사회적 기술훈련과 심리교육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효과성을 보이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³⁸⁾

1980년 이후 이루어진 사회사업실천의 성과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실천방법은 사례관리실천(Case Management Approach)이었다. Rubin은 자신의 연구대상에 포함된 조사연구 중에서 효과적인 실천의 증거가 보이는 공통적 요인 중의 하나가 중증 신체 또는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실천이었다고 밝히고 있다.³⁹⁾ 그런

Task-Centered Casework in Three Settings, London; Allen & Unwin, 1985.

34) Russell, M. N. Clinical Social Work: Research and Practic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0, pp. 103-108.

35) Sinclair, I. & Walker, D. "Task-Centered Casework in Two Intake Teams," in E. M. Goldberg, J. Gibbons, & I. Sinclair (Eds.), 1985, 전제서. pp. 13-85.

36) Rubin, A. 1985, 전제논문.

37) Berlin, S.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for Problems of Self-Criticism among Women,"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Vol. 16, 1980, pp. 19-28.

38) Peterson, K. J., & Anderson, S. C. "Evaluation of Social Work Practice in Health Care Settings," Social Work in Health Care, Vol. 10, 1984, pp. 1-10.

데 사례관리가 이러한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이유는 적극적인 사례발굴(outreach), 지역사회기관의 연계(linkage), 클라이언트의 대변인 역할, 계획된 서비스 전달의 점검과 확보, 추후의 지속적인 서비스 등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사례관리실천의 원칙과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행동주의 접근법은 인지적 행동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구체적인 기술습득에 유용한 실천방법이며, 행동주의적 실천기법을 선별적으로 확대적용하면서 단기치료의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과업중심적 접근방법은 문제의 심각도가 중간 수준인 다양한 클라이언트 집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잡다양한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하는 중증의 정신 및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적 실천은 사례관리기법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회사업실천은 실제로 다양한 문제상황, 클라이언트의 특성, 기관의 여건과 정책, 그리고 실천가의 교육 및 지식적 배경과 가치관 등 복잡한 요소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는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임상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효과적인 실천은 어느 한가지 모델을 적용하거나 어느 특정한 개입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실로 다양한 임상적 특수성에 따라 효과적인 실천방법은 천차만별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단지 여기에서 제시된 행동주의 접근법, 과업중심적 접근방법, 사례관리기법들은 과학적인 조사연구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실천방법들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인식론에 관한 논쟁과 조사방법론

1. Fischer와 경험적 실천운동의 결합

사회사업은 전문직과 학문형성의 초기부터 경험주의와 과학성에 그 기반을 두어 왔다. Mary Richmond는 일찍이 사회사업이 실천학문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진단(social diagnosis)이란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 자료의 수집으로 가설이 형성되고

39) Rubin, A. 1985, 전개논문.

이러한 가설은 경험적인 증거의 확보로 검증되는 과정을 거치는 과학적 과정의 산출물이라고 규정했다.⁴⁰⁾ Hollis 역시 과학성을 강조하는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개별사회사업은 과학적 예술(scientific art)이라고 선언했다.⁴¹⁾ 그러나 1920년대 이후 정신역동이론이 도입되어 점차 주된 사회사업실천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과학적 실천학문은 단지 이론에 근거한 실천으로 잘못 인도되었고 사회사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에 기반을 둔 학문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실제로 Freud의 정신역동이론은 인간 무의식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정신내적인 현상을 관념화하여 체계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 조사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사회사업실천이론을 대표하는 심리역동적 실천방법의 취약한 과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현장에서 사회사업가들에 의한 조사연구⁴²⁾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체계적인 개입기술과 방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소위 경험적 실천운동(Empirical Practice Movement)이 전개되기 시작했다.⁴³⁾ 그러자 1970년대 Fischer에 의해 제기된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 논쟁은 이같은 경험적 실천운동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의 구실을 하였다. Fischer가 전통적인 사회사업실천이 비효과적인 것은 사회사업이 비과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는 경험적 실천운동가들의 대변인이 되어 사회사업의 과학화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경험적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차원에서의 원칙을 고수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⁴⁴⁾ 첫째,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연구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둘째, 실천과정에서 포함되는 문제, 개입, 성과를 관찰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실천 과정과 결과가 효과적인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셋째, 조사연구를 실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며 자료는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실천을 도중에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한다. 넷째, 실천과 조사연구를 문제해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시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정의하고 개입방법을 선정하고 사정

40) Richmond, M. *Social Diagnosis*, New York: Russell Sage, 1917.

41) Hollis, F. "Contemporary Issues for Caseworkers," In *Ego-oriented Casework*, H. J. Purad & R. R. Miller (Eds.),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63, pp. 13. Hollis는 개별사회사업의 과학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1960년대 심리역동적 개별사회사업 실천을 주도한 학자도 잘 알려져 있다.

42) 사회사업가에 의한 조사연구는 결국 실천가-조사자(practitioner-researcher)의 모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사업가는 자신의 실천이 경험적으로 어떤 클라이언트 상태의 변화를 유발했는지를 스스로 조사연구를 통해서 검증할 것을 강조한다.

43) Reid, W. J. "The Empirical Practice Movement," *Social Service Review*, Vol. 68, No. 2, 1994, pp. 165-184.

44) Siegel, D. H. "Defining Empirically Based Practice," *Social Work*, Vol. 29, No. 4, 1984, pp. 325-331.

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입의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실천과정이 마치 조사연구를 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Fischer는 사회사업실천이 비효과적인 것은 사회사업가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실천현장에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그들이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과정을 거친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 실천론자와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scher를 포함한 경험적 실천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식과 기술은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⁴⁵⁾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다양한 진리추구의 방법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소위 인식론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란은 사회사업의 과학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어 인식론과 조사방법론을 중심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2. 인식론에 대한 논쟁과 그 결과

인식론(epistemology)이란 지식의 본질과 지식을 규명하는 방법에 관한 학문인데, 이 논쟁에서는 사회사업에서 효과적이라고 간주되는 실천지식은 무엇이고 어떠한 조사방법을 통해서 규명되고 인정되는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사실상 경험적 실천론자들이 말하는 지식은 조사자들이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설정 및 비교와 같은 엄밀한 과학적 조사방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집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논리적 실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 과학적 절차를 거쳐서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식만이 유용하다는 Fischer를 포함한 경험적 실천론자들의 입장을 대표한 Hudson은 사회사업적 개입의 과학성에 관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문제를 측정할 수 없으면 개입 또는 치료도 불가능하다”라는 소위 치료의 제일원칙을 제시 하였다.⁴⁶⁾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자 다시 거센 반론이 실천현장과 학계로 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우

45) 논리적 실증주의란 어떤 이론적 명제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경험적으로 입증되거나 거부될 때 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과학철학의 접근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논리적 실증주의를 신봉하는 학자들은 모든 의미있는 명제들을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조사되어야 하고 사회과학도 그 이론의 타당성과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의 측정원리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6) Hudson, W. W. "First Axioms of Treatment," *Social Work*, Vol. 23, 1978, pp. 65-66.

선 실천현장에 있는 사회사업가들은 가능케하는(enabling) 전문직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기능증진과 예방을 목표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측정될 수도 없고, 또한 문제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 그들의 논리대로 어떤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사업은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난했다.⁴⁷⁾ 그리고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실천을 할 수 없는 것은 사회사업 교육자 또는 연구자들이 효과적인 실천방법에 관한 지식의 축적과 전달에 실패했고 사회사업가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개입을 측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방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화살을 학계에 돌리고 있었다.⁴⁸⁾

이와 같은 실천현장에서의 비판은 일면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논쟁의 본질을 오도하고 논점을 흐리게 하는 부분도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필자는 Hudson이 사회사업실천을 일종의 문제해결과정으로 보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측정하자고 주장한 점은 이해하나 모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사회사업가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인 해석이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단지 그가 사회사업가는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 과학적인 조사연구에 기반을 두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지식과 실천방법을 사용하고 스스로 개입과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문제의 측정과 측정에 의한 개입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건설적인 대안의 제시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학계에서의 비판은 대표적으로 Heineman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녀는 논리적 실증주의를 표방하는 학자들은 사회사업적 지식을 사회사업 본질에 적합한 다른 형태의 가치로운 정보를 도외시하면서 단순화되어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형태의 지식만이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용도 폐기되어 쓸모 없는 과학적 명제(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그녀는 기존에 이루어진 논리적 실증주의에 의한 조사연구는 실천현장의 사회사업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복잡다양한 실천현장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사회사업적 개입은 경험적으로 검증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사회사업가가 실천과정에서 스스로 유용한 지식을 개발하는 자기발견적(heuristic)조사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⁴⁹⁾ 그리고 Imre는 모든 지식이 경험적 실천론자들이 주장하는

47) Neisser, M. "Points and Viewpoints: Response to Hudson's First Axioms of Treatment Measurable Problems," *Social Work*, Vol. 23, No. 3, 1978, pp. 249.

48) Taubman, S. B. "Points and Viewpoints: Responses to Hudson's First Axioms of Treatment, Educating the Practitioner-Research," *Social Work*, Vol. 23, No. 3, 1978, pp. 249-250.

바와 같이 명료하고 계량적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경험적 실천론자들이 과학을 선호하고 중시하면서 특정한 조사방법을 강조하는 것도 일종의 가치 개입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간에 관한 지식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채 경험성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⁵⁰⁾

물론 사회사업실천에서의 유용한 지식의 범위에는 사회사업가들의 오랜 임상적 경험에서도 출된 실천원칙(practice principles)과 실천지혜(practice wisdom)를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원칙과 지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어 검증될 필요성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적 조사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이 사회사업가들이 보다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연구결과로 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실천 지침(practice guidelings)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한 점도 인정이 되지만 사회사업실천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Heineman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하튼 경험적 실천론자들은 사회사업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격한 조사과정을 거친 후 통상 인정되는 일반화된 지식이 주관적으로 판단되고 검증되지 않는 지식보다는 더욱 유용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양적 및 질적 조사방법에 대한 논쟁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경험적 실천론자들의 과학철학적 접근방법 또는 근거가 되는 논리적 실증주의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 양적접근(quantitative approach)을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가들의 활동에는 단순히 계량적으로 분석되어 평가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방법론으로 조사된 지식은 실천현장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체적인 질적접근(qualitative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등장했다.⁵¹⁾ 따라서 논쟁은 다시 효과적인 실천의 기반이 되는 사회사업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질적조사와 양적조사 방법

49) Heineman, M. B.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Vol. 55, 1981, pp. 371-397.

50) Imre, R. W. "The Nature of Knowledge in Social Work," *Social Work*, Vol. 29, No. 1, 1984, pp. 41-45.

51) Ruckdeschel, R. A., & Farris, B. E. "Assessing Practice: A Critical Look at Single-Case Design," *Social Casework*, Vol. 62, 1981, pp. 413-419. Weissman, H. "Teaching Qualitative Methods," In S. Briar, H. Weissman, & A. Rubin (Eds.), *Research Utiliza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New York: CSWE, 1981, pp. 89-65.

론의 차이와 우월성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기도 하였다.

양적조사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⁵²⁾ 첫째, 양적조사방법은 사회사업가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해 온 가치문제와 같은 실천의 핵심적인 요소를 등한시하고 조사연구의 대상을 너무 측정가능한 요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왜곡시킬 수 있다. 둘째, 양적조사방법은 기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찰을 근거로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므로 이러한 조사결과가 자연스러운 실천현장에 적용되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자는 가치중립적으로 연구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하나 실제로 조사자도 주관적인 자아를 갖는 인간이고 연구대상도 인간인 점에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질적조사방법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사업과 같은 학문에서는 클라이언트 삶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접근방법이 더욱 적합하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사실상 효과적인 사회사업적 실천을 위한 지식은 조사연구의 여건과 목적에 따라 양적 또는 질적 조사방법이 모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만일 특정한 서비스대상에 대한 특정한 개입방법에 관해서 축적된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지식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적 조사에는 질적조사방법이 더욱 적절하며, 이미 확립된 이론을 인과관계에 의해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목적의 설명적 조사에는 양적조사방법이 적합하다. 또한 개입과정과 클라이언트의 문제상황에 대한 조사자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과정에서 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조사 도구나 수단에 의해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경우에는 질적조사방법이 더욱 바람직한 조사방법이 될 것이다.

여하튼 효과적인 사회사업 실천에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 무엇이 진실이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으로 시작된 인식론과 조사방법에 관한 논쟁은 연구문제의 조작적 정의와 "계량적자료"(hard data)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방법의 과정을 거친 지식이 보다 유용하다는 경험주의 또는 논리적 실증주의적 입장에 대하여, 인간과 상황에 관한 풍부한 서술을 기초로한 "연성자료"(soft data)의 중요성과 연구대상의 주관적인 시각을 통한 인간행동의 기술과 설명이 더욱 타당한 지식이라고 강조하는 상대주의 또는 실용주의의 양대 대결구도를 형성한 채 지속되었다. Fischer 자신을 포함하여 Schurman, Gordon, Mullen 그리고 Weick 등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들⁵³⁾이 대거 이

52) Allen-Mears, P. & Lane, B. A. "Social Work Practice: Integrating Qualitative and Quantative Data Collection Techniques" Social Work, Vol. 25, No. 5, 1990, pp. 452-458.

53) Fischer, J. "The Social Work Revolution," Social Work, Vol. 26, 1981, pp. 199-207. Schurman, J. R. "Debate with Author: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러한 논쟁에 가담했으나, 논쟁 그 자체는 Karger⁵⁴⁾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사업전문직의 미래와 조사연구의 방향을 좌우하기 위한 학계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비추어지기도 하였지만 사회사업은 그 성격상 다양한 조사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론적인 다원주의(epistemological pluralism)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Hartman은 실로 그 깊이와 넓이가 광범위한 사회사업전문직의 범위를 고려할 때 대규모 집단조사, 사회조사, 평가조사, 단일사례조사 등과 같은 계량적 조사방법과 함께 현장조사, 민속적 조사방법, 사례조사, 자연주의적 조사 그리고 자기발견적 조사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질적 조사연구방법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⁵⁵⁾ 최근에는 논리적 실증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치료와 조사연구의 객관성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질적조사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질적조사는 양적조사의 결과를 더욱 강화해 준다는 견해를 표방하는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가 인기를 끌고 있다.⁵⁶⁾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양한 조사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다 잘 인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는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며 사회사업의 지식의 확충을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IV. 실천가-조사자(Practitioner-Researcher)의 역할과 단일사례조사

1. 사회사업가의 역할과 실천가-조사자

효과성 논쟁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의의는 사회사업가의 역할변화에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사업실천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가는 자신의 실천활동과 관련된 학문적 활동과 조사연구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고 자신의 개입결과를 스스로

Vol. 56, No. 2, 1982, pp. 144-148. Gordon, W. E. "Social Work Revolution or Evolution?" *Social Work*, Vol. 28, 1983, pp. 181-185. Mullen, E. "Methodological Dilemmas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Vol. 21, 1985, pp. 12-30. Weick, A. "Reconceptualizing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 of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Vol. 61, 1987, pp. 218-230.

54) Karger, H. J. "Science, Research, and Social Work: Who Controls the Profession?" *Social Work*, Vol. 28, 1983, pp. 200-205.

55) Hartman, A. "Many Ways of Knowing," *Social Work*, Vol. 35, No. 5, 1990, pp. 3-4.

56) Videka-Sherman, L., & Reid, W. J. (eds.) *Advances in Clinical Social Work Research*, Silver Spring, NJ: NASW Press, 1990. Fraser, M., Taylor, M. J., Jackson, R., & O'Jack, J. "Social Work and Science: Many Ways of Knowing?"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 Vol. 27, No. 4, 1991, pp. 5-15.

평가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는데 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는 실천가이면서 동시에 조사자로서 자신의 실천활동을 철저히 조사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일사례조사(single-subject design)와 같은 조사기법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⁵⁷⁾ 책임성이 강조되고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더욱 희소한 환경적 변화에 사회사업전문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사회사업기관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프로그램과 자신의 임상적 실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란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 더욱 중요시 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Fischer와 경험적 실천론자들이 사회사업가는 실천가인 동시에 조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단일사례조사기법을 적극 권장하게 된 이유는 몇가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첫째, 효과적인 사회사업실천과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연구에 의한 지식의 활용과 자신의 실천을 평가해야 하는데, 실제로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 문제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실천에 참고로 하지 않으며 평가를 직접 실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⁵⁸⁾ 둘째, 1970년대까지 사회사업실천에 관한 평가는 주로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으로 훈련된 학자들로 구성된 조사자들이 제 삼자의 입장에서 임상적 실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평가했기 때문에 사회사업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과 사회사업기관을 배경으로 한 실천가들의 갈등이 내재하였다.⁵⁹⁾ 이와 같은 조사와 실천 사이의 간극(gap)을 매워 통합을 이루고 사회사업가들의 조사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시켜 실천현장에서 조사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실천가-조사자의 통합모형이며 단일사례조사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게되어 미국 사회사업교육위원회(CSWE)는 1983년 7월 1일부터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학과를 둔 대학의 학부와 석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임상적 조사방법론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⁶⁰⁾ 그래서 사회사업대학들은 실천방법론 과목에 조사연구

57) Briar, S. "Toward the Intergration of Practice and Research," In D. Fanshel ed., *Future of Social Work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80, pp. 31-37. Boom, M., & Fischer, J. *Evaluating Practice: Guidelines for the Accountable Professiona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58) Rosenblatt, A. "Practitioner's Use and Evaluation of Research," *Social Work*, Vol. 13, 1968, pp. 53-59. Casselman, B. "On the Practitioner's Orientation toward Research,"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Vol. 42, 1972, pp. 211-233. Kirk, S. A. Osmalov, M. J., & Fischer, J. "Social Workers Involvement in Research," *Social Work*, Vol. 21, 1976, pp. 121-124.

59) Epstein, I. "In Quest of a Research-Based Model for Clinical Practice: Or, Why Can't a Social Worker Be More Like a Researcher?" *Social Work Research*, Vol. 20, No. 2, 1996, pp. 97-99.

60)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urriculum Policy for Master's and Baccalaureate Degree

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조사방법론 과목에 실천사례를 적용하며 조사하는 구체적인 기법을 교육하거나, 때로는 통합과목의 형태로 교육하기도 하였다. 한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 말까지 1/3정도의 사회사업대학원에서 조사방법론은 단일사례조사설계와 실천평가가 강조되고 그 밖의 우수 대학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교육되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⁶¹⁾

그러나 실천가-조사자의 모형과 단일사례조사는 비판없이 완전히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Fischer와 경험적 실천론자들이 주장하는 실천가-조사자 모형의 장점과 이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학자들의 논점을 규명해 보겠다. 우선 Fischer는 실천가-조사자의 통합모형은 사회사업가가 다양한 실천방법론에서 경험적이며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최선의 지식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문제해결에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고 조사를 함으로써 진단적 지식이 아닌 변화를 위한 실천지식을 축적하고, 그러한 효과적인 기술을 적용한 것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사업계는 실제로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모형의 현장 적용으로 Kuhn이 말한 과학적 혁명의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⁶²⁾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⁶³⁾ 그리고 Briar는 실천가-조사자 통합모형은 사회사업가가 상담과 치료에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인 목표설정에도 도움을 주고 일상적 실천과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과 개입에 필요한 효과적인 실천지식을 축적해 나가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⁴⁾

이에 대하여 Gordon은 Fischer가 제시한 사회사업의 과학적 혁명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회사업은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과 진화만 있을 뿐이고, 경험적 실천론자들은 사회사업에서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사업의 근본적인 개념적 틀인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규명하고 개입하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⁶⁵⁾ 그리고 Thomas는 실천가와 조

Programs in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Education Reporter*, Vol. 30, 1982, pp. 5-12.

61) Fraser, M., Lewis, R. E., & Norman, J. L. "Research Education in M. S. W. Programs: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Vol. 4, No 2, 1991, pp. 83-103.

62) Kuhn, T.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1970. 이 책에서 Kuhn은 어떤 학문이 취급하는 문제를 현존하는 학문적 이론이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학문은 위기를 맞게 되고, 이러한 위기는 기존 학문적 이론과 법칙의 대량 파괴와 대체적인 이론의 양산을 수반하게 되어 결국 한 학문에서 공유되는 기본적인 가치, 신념, 기법의 총체로 설명되는 패러다임(paradigm)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물리학적 자료를 통해서 과학철학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을 설명한 유명한 이론을 제시했다.

63) Fischer, J., 1981, 전제논문.

64) Briar, S. "Toward the Integration of Practice and Research," In D. Fanshel (Ed.), 1980, 전제서, pp. 31-37.

65) Gordon, W. E. "Social Work Revolution or Evolution?" *Social Work*, Vol. 28, No. 3, 1983, pp. 181-185.

사자는 양립 불가능하고 조사의 목적과 서비스의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상충하는 경우를 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⁶⁶⁾ 예컨대, 단일사례조사설계에 의한 조사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중단과 재개를 거듭해야 하는데 이것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비스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동일한 맥락해서 최근 Meyer는 사회사업이 상황 속의 인간(person-in-situation)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적 틀을 유지하는 한, 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 상담일지와 같은 중요한 질적 자료는 계량화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표현되지 않은 양면성, 근심, 공격성과 같은 인간적인 측면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천가-조사자는 행동주의적 실천을 하는 사회사업가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⁶⁷⁾

2. 단일사례조사의 유용성과 한계

한편 사회사업가들이 단일사례조사(single-subject design)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단일사례조사가 갖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장점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인다.⁶⁸⁾ 첫째, 단일사례조사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 또는 가족을 하나의 사례로 보고 사회사업가의 개입을 전후로 나누어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해결 정도를 측정하여 간편하게 실천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조사기법이다. 둘째, 사회사업가는 개입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진전이 없는 경우 도중에 서비스의 내용과 방향을 수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셋째,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자료의 수집으로 서비스 제공의 결과에 관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실천지식을 개발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일사례조사의 특성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단일사례조사도 다른 형태의 의사실험조사방법과 같이 측정에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행동상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적 실천에의 적용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⁶⁹⁾ 또한 단일사례조사의

66) Thomas, E. J. "Research and Service in Single-Case Experimentation: Conflicts and Choice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Vol. 14, 1978, pp. 20-31.

67) Meyer, C. H. "My Son the Scientist," *Social Work Research*, Vol. 20, No. 2, 1996, pp. 101-104.

68) Howe, M. "Casework Self-Evaluation: A Single-Subject Approach," *Social Service Review*, Vol. 48, 1974, pp. 1-21. Levy, R. L., & Olsen, D. G. "The Single-Subject Methodology in Clinical Practice: An Overview," *Journal of Soci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3, 1979, pp. 25-49. Bloom, M., & Fischer, J. 1982, 전거서.

기본적인 가정인 개입과 의도된 결과가 단선적인 하나의 독립변수와 또 다른 하나의 종속 변수로 보는 것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팀 접근 등과 같이 복잡다양한 사회사업 실천현장에 적용되기 어렵고,⁷⁰⁾ 그러한 조사방법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클라이언트를 조종하거나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문직의 윤리성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⁷¹⁾ 그리고 Briar는 평가는 냉철하고 비인정적인 것으로 실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단일사례조사가 갖는 실천현장에서의 적용상 한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사회사업가는 단일사례조사를 위해서 과중한 업무에서 측정을 위해 한 두 가지의 독립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성과에 얽매 일 수 없고, 안정적 기초선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개입을 특정 시간까지 한정적으로 하거나 때로는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중에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⁷²⁾

전통적인 사회사업실천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과성을 입증할 수도 없었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Fischer와 경험적실천론자들이 주장하는 실천가-조사자의 모형과 단일사례조사방법은 사회사업가들이 현장에서 상담과 치료를 하는 동시에 조사연구를 용이하게 하여 자신들의 개입과 그 효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문제 양상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없는 문제를 측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복합 기초선의 설정, 철회, 반전 등은 조사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손상시키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실천가-조사자 모형은 사회사업가들이 보다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 조사연구를 적극 활용하는데 있어서 과학성과 경험성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성을 약간 도외시 한 측면이 엿 보이고 단일 사례조사도 사회사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사방법의 기법 가운데 유용한 한 가지 조사기법이란 사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경험적 실천론자들은 실제로 복잡한 단일조사설계는 보통의 실천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잡한 설계를 간편화하거나 AB설계와 같은 간단한 기법을 더욱 권장하고 있다.⁷³⁾ 또한 Fischer 자

69) Ruckdeschel, R. A., & Farris, B. E., 1981, 전계논문.

70) Kagle, J. D. "Using Single-Subject Measures in Practice Decisions: Systematic Documentation or Distortion?" *Arete*, Vol. 7, No. 2, 1982, pp. 1-9.

71) Saleeby, D. "The Tension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Assumption of the Experimental Paradigm,"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Vol. 7, 1979, pp. 267-284.

72) Briar, S. "Toward the Integration of Practice and Research," In D. Fanshel (Ed.), 1980, 전계서, pp. 31-37. Briar, S. "Integration of Practice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In A. J. Grasso & I. Epstein (Eds.), *Research Utilization in the Social Services*, Binghamton, NY: Haworth Press, 1992, pp. 37-49.

신도 최근에는 단일사례조사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질적조사도 임상적 실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⁷⁴⁾

V. 종합 평가 및 최근의 경향

전통적으로 사회사업가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공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초기에 이루어진 사회사업실천의 성과에 관한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1960년대까지 이루어진 개입의 결과에 관한 조사연구의 비평적 분석에서 밝혀졌듯이 당시는 개입방법을 구체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개입방법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정확히 규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Fischer는 주로 1950년대와 1960년대 이루어진 개입결과에 관한 조사연구를 대상으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해 본 결과 1973년 전통적인 사회사업실천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Fischer에 의해 제기된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 논쟁은 사실상 사회사업이 과연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실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사실 규명 그 자체에도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전문직으로 사회사업이 사회적 책임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과 방향을 확인하고 노력할 수 있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과 사회사업을 포함한 원조 전문직간의 심화된 경쟁상태에서 사회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을 가치 있는 전문직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는 당시의 학계와 실무계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실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사회사업 전문직이 풀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사회사업의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Fischer와 경험적 실천론자들이 제시한 것은 정확히 1965년 미국 사회사업가협회(NASW)가 발간하는 사회사업전문학술지(Social Work) 창간호에서 Preston과 Mudd가 언급한 사회사업의 책임성과 과학성을 증진시키는데 봉착하는

73) Reid, W. J. 1994, 전제논문.

74) Fischer, J. "Empirically Based Practice: The End of Ideolog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 18, 1993, pp. 19-64.

네가지 장애요인⁷⁵⁾을 제거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Fischer와 경험적 실천론자들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개입절차와 기술의 선택적 사용과 잘 구조화된 과업지향적 실천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단일사례조사의 유용성과 실천가-조사자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Fischer와 경험적 실천론자들이 사회사업의 책임성과 과학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제시한 제 대안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해 보고 그러한 대안들이 지난 20여년 동안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종합 평가하면서 최근의 경향을 살펴 보겠다.

우선 경험적으로 입증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실천방법과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효과성 논쟁 이후 과연 학계는 사회사업가들이 다양한 실천현장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천이론과 방법론을 충분히 개발하여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와 다른 하나는 그러면 Fischer와 경험적 실천론자들은 기존의 전통적 개별사회사업을 대체할 만한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방법과 기술 개발에 어느 정도 노력했고 또 그 성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평가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경험적 실천론자들은 사회사업가들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방법을 식별하고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과업중심적 접근방법과 행동주의 실천방법론의 권장 이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지만,⁷⁶⁾ 이것을 종합정리하여 참고 문헌과 함께 실천교재⁷⁷⁾를 개발하여 보급하는데에는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후자의 효과적인 실천방법과 기술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와 문제의 사정을 위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긴급사정도구(Rapid Assessment Instruments)의 개발과 확대 보급이 팔목할 만 하다. 긴급사정도구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표준화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25문항 내외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문항에 응답하게 하여 짧은 시간에 문제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개입을 전후로 비교하여

75) Preston, M. G., & Mudd, E. H. "Research and Service in Social Work: Conditions for a Stable Union," *Social Work*, Vol. 1, No. 1, 1956, pp. 34-40. 여기서 Preston과 Mudd는 사회사업실천의 효과를 조사하고 사회사업의 과학성을 추구하는데 당면하는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① 절차가 분명하고 조직화되어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개입방법의 결여 ② 신뢰할 만 하고 타당한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의 결핍 ③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사방법설계의 부족 ④ 적절히 훈련된 실천가-조사자의 부족 등 네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76) 이 부분에 관한 성과는 주로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최근 팔목할만 한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MacDonald, G., Sheldor, B., & Gillespie, J. "Contemporary Studies of the Effectiveness of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 22, 1992, pp. 615-643.

77) Fischer, J. 1978, 전게서. Schinke, S. (Ed.) *Behavioral Methods in Social Work*, New York: Aldine, 1981. Gambrill, E. *Casework: A Competency-Based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Corcoran, K. (Ed.) *Structure Change: Effective Practice for Common Client Problems*, Chicago, IL: Lyceum, 1992. Reid, W. J. *Task Strategies: An Empiric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92.

그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단일사례조사의 활용과 함께 실천가 조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정도구를 말한다.⁷⁸⁾ 이러한 사정도구는 임상적 실천현장에서 쉽사리 사용될 수 있는 측정도구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측정하지 못하면 개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Hudson⁷⁹⁾이 개발한 측정도구와 임상심리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측정 및 사정도구를 종합정리하여 최근에는 Fischer과 Corcoran⁸⁰⁾ 그리고 Nurius와 Hudson⁸¹⁾ 등의 학자들 의해서 중요한 참고서적으로 간행되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자에 와서 컴퓨터 보급의 확대로 사회사업가들은 이같이 다양한 측정도구를 개인용 컴퓨터에 장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사정, 점검, 그리고 평가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다.⁸²⁾

전술한 바와 같이 Fischer와 경험적 실천론자들은 실천현장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조사방법 기법으로 단일사례조사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그들은 새로이 사회사업가가 될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사업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사회사업조사방법론 과목에 단일사례조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1983년 부터 단일사례조사기법이 중요한 교과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미국사회사업교육위원회(CSWE)의 권고 규정을 획득한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래서 많은 사회사업대학들이 한 두 학기에 걸쳐 조사방법 과목에 표준화된 측정도구와 단일사례조사기법을 가르치고 있다.⁸³⁾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조사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록 단일사례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과 훈련을 마친 사회사업가들 중 극히 일부만이 상례적으로 자신의 실천과 관련해

78) Levitt, J. & Reid, W. J. "Rapid Assessment Instruments for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Abstracts*, Vol.17, 1981, pp. 13-20. Toseland, R. W. & Reid, W. J. "Using Rapid Assessment Instruments, In a Family Service Agency," *Social Casework*, Vol. 66, No. 9, 1985, pp. 547-555.

79) Hudson, W. W.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empe, AZ: Wacmyr Publishing Co., 1990.

80) Fischer, J., & Corcoran, K.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book*, 2nd ed., Vols. 1 & 2, New York: Free Press. 특히 이 책은 아동, 부부, 가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실천에서 다루는 다양한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보된 약320여개의 측정도구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상 분야 사회사업가들의 필수도서로 간주되고 있다.

81) Nurius, P. S., & Hudson, W. W. *Human Service Practice, Evaluation, and Computers*, Pacific Grove, CA: Brooks & Cole, 1993.

82) Thyer, B. A. "Social Work Practice in the Year 2006: A Developing Empirical Clinical Science," In *Future Issues in Social Work Practice*, P. R. Raffoul & C. A. McNeece (Eds.) Needham Hights, MA: Allyn & Bacon, 1996, pp. 77-84.

83) Wakefield, J. C. & Kirk, S. A. "Unscientific Thinking about Scientific Practice: Evaluating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Social Work Research*, Vol. 20, No. 2, 1996, pp. 83-95.

서 단일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⁸⁴⁾ 예컨대 Penka와 Kirk이 미국사회사업가협회(NASW)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적실천가들 가운데 12%만이 최소한 한번 이상 단일사례조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⁸⁵⁾ 이러한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회사업가들은 시간부족, 과중한 업무, 기관의 지원 결여 등의 이유로 단일사례조사를 쉽사리 적용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단일사례조사를 활용한 사회사업가에 의한 실천지식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고 단일사례조사는 여전히 사회사업가의 근무환경과 기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Briar는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험적 실천론자들의 교육적 접근은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아 단일사례조사와 같은 조사방법은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⁸⁶⁾ 아무튼 최근에는 이러한 조사방법의 유용성에 대하여 아직도 논쟁을 계속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⁸⁷⁾

마지막으로 사회사업가들이 실천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지식의 기반을 확충하고 자신의 실천 결과에 대한 조사연구로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안된 실천가-조사자 모형의 현실적 성공도의 정도를 평가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부각된다. 우선 단일사례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실천사례를 평가하여 발표한 사회사업가들은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들이 조사자가 되어 실천지식을 생산한 정도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⁸⁸⁾ 대신 단일사례조사방법으로 임상적 개입의 효과성을 조사연구하여 발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임상적 경험이 있거나 현재 수퍼바이저로 활동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천가-조사자는 실제로 실천가-학자의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Epstein은 사회사업가가 실천현장에서 조사

84) Richey, C. A., Blythe, B. J., & Berlin, S. B. "Do Social Workers Evaluate Their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Vol. 23, 1987, pp. 14-20. Kirk, S. A., & Penka, C. E. "Research Utilization and MSW Education: A Decade of Progress?" In *Research Utilization in the Social Services*, A. J. Grasso & I. Epstein (Eds.), New York: Haworth, 1992, pp. 407-419.

85) Penka, C. E., & Kirk, S. A. "Practitioner Involvement in Clinical Evaluation," *Social Work*, Vol. 36, 1991, pp. 513-518.

86) Briar, S. "Empiricism in Clinical Practice: Present and Future," In *Advances in Clinical Social Work Research*, L. Vedeka-Sherman & W. J. Reid (Eds.) Washington, DC: NASW Press, 1990.

87) 대표적인 예를 들면, 최근의 전문 학술지(*Social Work Research*, Vol. 20, No. 2, 1996)에서는 전체 논문을 경험적 실천론자들과 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의 글이 소개되어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사회사업가협회의 대표적 학술지(*Social Work*, Vol. 31, No. 2, 1991, & Vol. 32, No. 5, 1992)에서는 Witkin의 경험적 실천론에 대한 반론제기와 그에 따른 논쟁을 수록하고 있다.

88) Reid, W., 1994, 전제논문. 특히 사회사업가들은 사회사업 전문학술지에 조사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것보다 임상심리학이나 정신의학 관련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는데, 마치 집단조사에서 클라이언트를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배치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사회사업 전문직의 문화와 가치에 위배되듯이 단일사례조사방법의 적용도 그러한 이유로 현장의 사회사업가들이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들이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⁸⁹⁾

경험적 실천운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여실히 입증되는 부분은 역시 사회사업가들이 실천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책임성의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사명감이 확산되었고 실제로 다양한 조사연구의 결과를 실천에 응용하는 경험적인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하튼 실천가-조사자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조사자인 사회사업가가 자신의 개입을 설계하고 진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그가 집단조사를 사용하든 단일사례조사를 사용하든 구체적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화되고 효과성이 검증된 개입방법을 적용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데 크게 공헌한 학자는 Thomas와 Rothman이 있다. 특히 Thomas는 사회사업실천과 관련된 사회조사,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실험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사업가들이 특정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효과적인 개입을 설계하고 조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⁹⁰⁾ 그리고 Rothman은 사회사업가들이 다양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거시적 측면의 개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해 주어 조사연구와 사회사업실천을 통합하는 개입연구(intervention research)를 권장하는데 공헌했다.⁹¹⁾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회사업실천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과연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효과적인 사회사업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이것을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⁹²⁾ Fischer를 포함한 경험적 실천론자들은 사회사업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는 특정한 문제의 해결에 성공률이 높은 치료나 개입방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는 그러한 개입방법을 소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소위 클라이언트 권리장전(Client Bill of Rights)이 윤리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³⁾ Thyer도 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에

89) Epstein, I. "In Quest of a Research-Based Model for Clinical Practice: Or, Why Can't a Social Worker be More Like a Researcher?" *Social Work Research*, Vol. 20, No. 2, 1996, pp. 97-100.

90) Thomas, E. J. *Designing Intervention for the Helping Professions*, Bevele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4.

91) Rothman, J.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Human Servic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0.

92) Myers, L. L., & Thyer, B. A. "Should Social Work Clients Have the Right to Effective Treatment," *Social Work*, Vol. 42, No. 3, 1997, pp. 288-298.

게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지지를 받는 개입방법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러한 개입방법이 충분한 정도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효과적이지 않다고 완전히 인정될 때만 다른 대체적인 개입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⁹⁴⁾ 사실상 아직도 많은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고, 또한 특정한 문제해결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어느 정도의 경험적 지지를 받아야 신뢰할 만 한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효과적인 실천에 관한 윤리적 의무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실천방법의 식별과 보급이 확산되어 가고 또한 그러한 작업이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회사업가들은 최선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책임성을 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러한 윤리규정이 머지 않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VI. 한국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에의 함의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이 하나의 학문으로 도입되어 시작된지 꼭 반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해이다. 그 동안 우리 학계는 상당한 정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발전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의 이론들이 소개되거나 한국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학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이슈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⁹⁵⁾ 따라서 요즈음 우리 학계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론의 토착화”와 “임상과 정책 또는 실천 현장의 통합” 등이다.⁹⁶⁾ 필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금명간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

93) Bloom, M., Fischer, J., & Orime, J. *Evaluating Practice: Guidelines for the Accountable Profession*, 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1995, pp. 636.

94) Thyer, B. A. "Promoting an Empiricist Agenda within the Human Service: An Ethical and Humanistic Imperative,"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Vol. 26, 1995, pp. 93-98.

95)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을 진단한다,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95.

96)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의 통합적 접근, 199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96.

학의 과학성과 책임성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즉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에서 각종 사회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처방들을 과연 어느 정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처방들은 과연 어느 정도 기대한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과 귀를 중요한 실천현장 요원인 사회복지관의 관리자나 직원에게 들린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과 효과성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벌써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를 평가⁹⁷⁾하여 주요한 재원인 정부지원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평가의 기준과 척도는 합리성이 부족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학계와 실무계로 부터 비판⁹⁸⁾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학계가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학자들⁹⁹⁾이 수 년전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조만간 제기될 것이라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다시 한번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의 책임성과 과학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학계의 적절한 반응을 촉구한다.

최근 20여년 동안 미국 사회사업학계를 풍미한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결실로 맺어진 학문적 발전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직의 책임성 문제가 외부로 부터의 요구보다는 내부로 부터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는 답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실천의 효과성 논쟁과 미국 사회사업학의 발전이 주는 한국 사회사업학의 과학성과 책임성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사업학계는 이제 무분별한 미국 사회사업 실천이론의 도입과 적용에서 탈피하고 경험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실천이론과 방법론의 선별적 도입과 적용을 강조하고 한국적 사회사업 실천방법론의 토착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사

9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사회복지관 단순평가모형 개발: 합리적 보조금 지급방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98) 김통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문제점 및 대안," 사회복지관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pp. 5-28.

99) 이창호, "한국사회사업의 정체성의 위기와 과제," 사회복지연구, 제2호, 1990, pp. 95-120. 최일섭,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정보활용: 정책결정지원체계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2호, 1993, pp. 3.

업학계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실천이론을 별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 미국의 다양한 임상사회사업방법론이 소개되고 적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실천이론들이 얼마나 경험적 효과성을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효과성 논쟁이 가져다 준 결실의 하나로 필자가 종합정리하여 제시한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실천방법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 사회사업학계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과업중심적 모델과 행동주의적 모델이 지속적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갖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기법이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과업중심적 모델을 아동상답소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교육한 후 한국적 현장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¹⁰⁰⁾

임상사회사업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분석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치료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⁰¹⁾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가족치료의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거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효과적인 가족치료 이론과 방법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론과 치료기법이 어떠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또는 비효과적인가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얼마전 발표된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기법이 한국의 가족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조사한 연구¹⁰²⁾는 매우 환영할 만 하다.

둘째, 한국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방법과 측정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효과성 논쟁이 인식론에 관한 논쟁으로 발전되어 경험적 실천론자들의 논리적 실증주의와 양적 조사방법에 대한 반론의 제기로 결국 인식론적

100) 김혜란, "과제중심 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위탁보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0호, 1996, pp. 25-47.

101) 최균,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을 진단한다, 1995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95, pp. 1-14.

102) 김성천 · 노혜련 · 최인숙, "한국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중심적 단기가족치료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8호, 1996, pp. 101-133. 이 조사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단기가족치료의 효과성을 특히 단일사례조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단일사례조사를 통해서 효과성을 입증하려면 기준선 설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개입 전후로 효과성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매회(6회)마다 동일한 척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응답자의 조사도구에 대한 민감성으로 야기되는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처음부터 매회기마다 클라이언트에게 주관적인 문제해결의 정도에 관해서 1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하라고 질문하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하고 회기가 진행될수록 클라이언트에게 강요된 효과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는지 궁금하다.

인 다원주의로 결실을 맺은 이유는 사회사업의 다양한 실천활동은 어느 한 가지의 조사방법으로는 충분한 정도의 지식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사업학의 연구방법이 상당히 다양화 되어 사례분석을 비롯하여 질적 분석과 계량적 분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임상적 분야에서 사례조사의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이 성공적인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¹⁰³⁾ 또한 특정한 실천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해 본 결과 어떤 클라이언트 집단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집단조사와 단일사례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임상사회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고 미국의 경험적 실천론자들이 현장 적용의 실용성과 과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다양한 긴급사정도구(RAI)를 적극적으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척도와 사정도구들의 적용에서 어떤 문항들은 한국적 문화나 실정에 알맞게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사업학계는 임상적 실천현장의 사회사업가에게 전문적 지식의 개발과 효과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생산해 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상적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대체적으로 조사연구의 중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조사연구의 결과를 임상적 실천에 활용하는 정도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⁰⁴⁾ 이 연구에서 학계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조사연구방법의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실천적 지식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실천현장은 사회사업가들이 조사활동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1983년 이후 실천가-조사자의 모형이 권장되어 사회사업가들이 현장에서 집단 또는 단일사례조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입성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도 학계와 실무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다 전문화되고 책임성 있는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조사연구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일깨워 주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103) 김성천, "한국에 적용된 사회사업 실천이론의 연구동향에 관한 비판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7호, 1995, pp. 35-65.

104) 김연옥, "사회사업가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와 활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호, 1993, pp. 201-224.